

(붙임)

사 진 자 료



<승례문 복원현장을 취재하는 르 피가로지 기자>



<승례문 복원현장을 취재하는 르 피가로지 기자(맨 오른쪽)와
최종덕 국립문화재연구소장(앞줄 맨 왼쪽)>